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의 대응방안

전 주탄자니아 대사 송 금 영

2019. 4. 19

목차

1. 아프리카 개관

2. 최근 아프리카 정치 및 경제 동향

3.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70년 평가

4.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개요

5.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

6. 중국 차관의 상환 문제와 채무의 덫

7.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 및 해결 노력

8. 미, 일 등 주요국의 반응

9. 한국의 대응 방안

1. 아프리카 개관

- 세계 제2위 면적(지구 육지 면적의 약 20.3%)
  -동쪽으로 인도양, 서쪽으로 대서양, 북쪽으로 지중해

- 인구('16년) : 12.2억명(전 세계 인구 16.2%)

- 종교 : 기독교 45%, 이슬람 40%, 기타 15%

- 54개국
  - 저소득국(1인당 국민소득 1,005불 이하) 27개국
  - 하위 중소득국(1인당 국민소득 1,006-3,955불) 18개국

- 주요 자원 : 우라늄, 금, 코발트, 다이아몬드, 석유

2. 최근 아프리카 정치 및 경제 동향

- 전반적으로 안정적 추세이나, 통치자들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 이슬람 테러 등으로 불안 상존
  - 최근 감비아, 앙골라, 짐바브웨, DR콩고 대선에서 지도자 교체로 민주주의 확산 추세

-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 정부 관리능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경제발전 미진
  - 경제성장률('00-'16) : 연 4.6% (SSA지역은 '19년 3.4%)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FTA) 출범으로 경제통합 강화
  - '18.3월, 44개국 협정 체결로 총 GDP 2.5조 달러 규모의 무역 공동체 탄생 전망

3.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70년 평가(1950-2019)

ㅇ 사회주의 유대 및 무상원조를 토대로 One China 지지 확보 및 경제협력, 일대일로 사업 추진

- 대아프리카 무상원조(1950-2009년) : 중국 총 대외 원조의 45%
- 1970년대 19개 수교국이 1980년 중반 44개국
- 1972년 중국, UN에서 대만 축출

ㅇ ‘09년 중국, 아프리카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05-‘18) : 2,980억불

ㅇ 다자협력 기구 활용

- 중국-아프리카 포럼(FOCAS, 3년 마다 개최)

4.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개요

ㅇ 세계적 강국 도약을 위한 육・해상 인프라 구축 사업
- 육상 : 중국-중앙아시아-중동-유럽
- 해상 : 중국-동남아-인도양- 북동아프리카-지중해

ㅇ 세계 65개국 참가(아프리카 20개국)
- 세계 인구 60%, 세계 GDP 30%

ㅇ 규모 : 1,700여개 프로젝트(약 9,000억불)

ㅇ 공약 사업 : 1조 억불
- 실크로드 기금 400억불, AIIB 1,000억불
* 외환 보유고('18.12월) 3조 727억불

중국 육상 · 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뒤스부르크
모스크바
고속철 추진
러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루무치
몽골
하얼빈
이탈리아
베네치아
터키
이스탄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베이징
란저우
동해
한국
서해
지중해
그리스
아테네
실크로드 경제벨트
중국
시안
이집트
하이커우
광저우
인도
콜카타
베이하이
태평양
미얀마
시트웨
취안저우
(해상실크로드 허브)
아라비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케냐
나이로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자료=중국 언론 종합

5.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14-'18)

가. 현황

ㅇ 인도양과 홍해 연안국가, 천연 자원 보유 국가에 집중

- 지부티 해군기지 운영('17.8월) 및 항만 개발(18억불)
- 에티오피아-지부티 철도 건설(40억불)
- 케냐 철도건설 1단계(30억불) 및 2단계 건설(38억불)
- 탄자니아 가스관 건설(12억불) 및 바가모요 항만개발(100억불)
- 가나의 가스 및 원유생산 시설(30억불)
- 잠비아 수력 발전소(10억불), 짐바브웨 화력발전소(20억불)

* 중국, 지난 17년간 1,430억불 차관 공여

나. 특징

ㅇ 중국정부가 계약 체결, 시공 등 전 과정을 총괄

- 중국개발은행(CDB)의 차관 제공, 중국석유공사(CNPC)/ 철도공사(CRCC)/ 건설공정총공사(CSCEC)의 설계 및 시공

ㅇ 수원국과 불공정한 차관공여 계약 및 부정부패

ㅇ 높은 이자의 단기 상업성 차관 위주

ㅇ 차관과 민간투자 구별이 모호

6. 중국 차관의 상환 문제와 채무의 덫

ㅇ 아프리카의 대중국 채무는 총 채무의 20%이며,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2021년 심각한 부채상환에 직면('18 IMF 보고)

- 동아프리카의 대중국 채무('18.4월) : 294억불
- 에티오피아 137억불, 케냐 98억불, 탄자니아 23억불

ㅇ 중국 정부의 주장

- 아프리카의 대중국 채무는 지난 17년간 1, 439억불(아프리카 총 채무의 3%)이며, 아프리카의 대IMF 및 WB 채무가 36%

* 중국, '18년 제3회 중-아프리카포럼(FOCAS)시 600억불 차관 공약

7.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 및 해결노력

가. 반응

ㅇ 대체적으로 중국 진출을 환영하나, 차관 상환은 불투명
- 경제성장을 위한 낙후화된 인프라 구축 시급
- 중국 이외 여타 나라로부터 대규모 차관 도입 어려움
- 미, 일, 유럽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 방안

ㅇ 중국의 아프리카 경제개발 기여 여부에 대한 재평가
- 수원국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차관 및 공사비 과다 책정
- 경제성 보다 정치적 목적의 과시적 대형사업
- 현지 고용 창출 및 제조업 파급 효과 저조
- 집권당에 대한 야당의 반발 및 지방 주민의 반감

나. 해결 노력

ㅇ 채무 탕감
- 중국, 아프리카 개도국의 탕감 요청에 소극적

ㅇ 채무 상환 연장
- ’18.9월 에티오피아, 중국과 협상으로 40억불 차관의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ㅇ 중국과 불공정한 차관공여 협정 개정 추진

ㅇ 채무상환을 위해 대중국 수출 확대 희망

8. 미,일 등 주요국의 반응

ㅇ 미, 유럽, 일본은 중국식 경제방식(China Standard) 확산 및 개도국 거버넌스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ㅇ ‘17.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을 채택하여 3대 축(경제개발, 거버너스, 안보) 강조

-‘18.10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국개발처(USAID)을 통합,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설립(사업비 600억불)

- 민간자본이 투자 가능한 환경 조성 및 경제개발 추진

ㅇ ‘16년 일본,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정상회의시 300억불 투자 공약

9. 한국의 대응방안

ㅇ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 대통령, 총리 등 정기적 양국 정상회담 개최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한-아프리카 재단, 한-아프리카 포럼 활용

ㅇ 우수한 경쟁력으로 틈새시장 공략
- 한국 철도공사의 탄자니아 표준궤도 사업(1,219km, 76억불) 설계 및 시공 감리

ㅇ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 전문가 방한초청 사업, 현지 직업훈련센터 건립
- 수출입은행의 EDCF 증액
- 기업의 CSR, 민관협력(PPP) 활용

ㅇ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협업(co-financing)
-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활용

감사합니다